

정선군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 농가경영구조에 관한 연구

이향미¹, 고종태^{1*}, 전주영¹

¹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2012년 04월 23일 접수, 2012년 06월 15일 수리)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ucture of Highland vegetables in Jeongseongun

Yi, H. M.¹, J. T. Goh^{1*} and C. Y. Cheon¹

¹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has selected Jeongseon County and analyzed the management structure of highland vegetable growing farm households as the target subject. The result has revealed the major farm family type is a 2 family household (a family-run farm household) and the average population per household is 2.4 people. The average cultivation area of the target subjects is 14.1 ha, and they aggressively expand the managerial scale through lease. The work system of summer chinese cabbage vegetable has shown that there is no trusted farming. The farm households prefer to do the business with the producing area dealers than with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Key words: Agricultural Cooperatives, Contracts, Farm family type, Highland vegetable, Management structure.

서론

고랭지 채소의 재배면적은 1998년 8,653 ha에서 2007년 9,131 ha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감소하여 2010년에는 7,058 ha로 감소하였다. 강원도는 지역 여건상 고랭지 채소의 지역 특화도가 타지역보다 높다. 특히 고랭지 노지 채소는 산지유통인들에 의한 산지 취급물량이 70-90%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국 농업의 위기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주요 요인이지만 더 근본적인 위기는 우수한 경영주체의 부족이다(임, 2008). 김정호 외(2007)는 경제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의 농업경영체적인 성격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중농층이 분해하면서 영세농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대농층으로 집적되는 양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유덕기 외(1996)는 농가의 농업 수익 증대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개별 농가의 자립 경영 형태가 바람직하나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경영 개선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작지 형태의 규모 확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전업농, 겸업농, 차지농, 위탁 영농 회사가 병립하는 경영 형태가 이루어 질것이다.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농업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농가의 경영체 성격 및 인력구조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의 경영구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의 경영구조를 분석하여 현재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바람직한 고랭지 채소 생산기반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랭지 배추 생산 및 유통구조

생산현황

Table 1은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무는 2010년에 정선 339 ha, 강릉 282 ha,

*Corresponding Author: Goh, J. T. (E-mail: gohjt@kangwon.ac.kr)

Table 1. Production of Gangwon-do Highland vegetables

시군별	재배 면적(ha)			생산량(톤)		
	합계	무	배추	합계	무	배추
계	7,1058	1,611	5,447	184,000	40,018	143,982
정선군	1,125	339	786	29,196	8,417	20,779
강릉시	650	282	368	16,767	7,022	9,715
태백시	940	48	892	24,773	1,192	23,581
삼척시	1,287	6	1,281	34,014	149	33,865
홍천군	288	193	95	7,303	4,792	2,511
횡성군	327	86	241	8,506	2,135	6,371
영월군	272	9	263	7,176	223	6,953
평창군	1,529	278	1,251	39,973	6,902	33,071
화천군	47	15	32	1,218	372	846
양구군	201	180	21	5,023	4,469	554
인제군	321	160	161	8,229	3,973	4,256
고성군	71	15	56	1,852	372	1,480

data: Gangwon-do administration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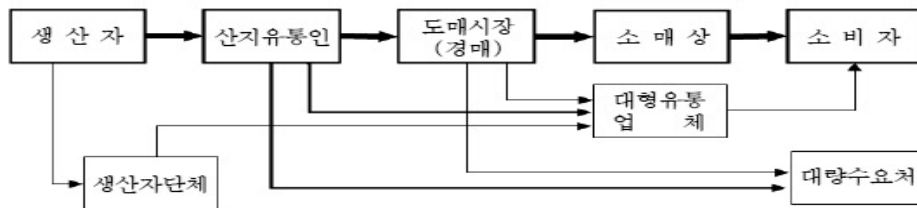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Highland vegetables.

홍천 193 ha, 양구 180 ha, 인제 160 ha로 이 5개 지역이 전체 고랭지 무 재배면적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배추는 2010년 기준으로 삼척 1,281 ha, 평창 1,251 ha, 태백 892 ha, 정선 786 ha로 이 4개 지역이 강원도 전체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구조

Figure 1은 노지채소의 일반적인 유통경로이다. 2010년은 산지 가격 강세로 인해 산지유통인을 통한 포전거래 물량 비율이 증가했다. 배추의 경우 2009년 72%에서 81%로 12.5% 상승하였다. 무는 산지유통인의 취급비중이 88%에 이르고 있다.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의 경영구조 분석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정선군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를 조사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정선군은 고랭지 무의 재배면적이 339 ha, 생산량이 8,417톤으로 강원도 고랭지 무 재배면

적, 생산량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의 경영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Table 2는 정선군의 농업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9년 경지면적은 7,351 ha인데 이 가운데 밭이 6,917 ha로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농가 수는 2008년 3,190호까지 감소했다가 2009년에는 3,853호로 증가했다. 정선군은 배추와 무 중심의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Table 2에서와 같이 무는 2004년 7,264 kg/10a로 가장 높다가 2009년에는 3,625 kg/10a로 감소하였다. 배추는 2004년 1,534 kg/10a로 가장 낮다가 2009년에는 4,650 kg/10a로 증가하였다.

조사 지역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지역은 정선군 신동읍과 임계면이다. 신동읍은 조동리(세비재), 가사리를 선정하였고 임계면은 천포리, 낙천리, 가목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임계면의 고랭지 채소 재배시작 시기는 1970년 초기이고 신동읍은 10년후인 1980년대 이후 재배를 시작하였다.

신동읍 세비재는 조동리의 전통적인 이름이다. 세비재

는 주로 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무 재배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국유지였으나 5년전에 불하되었다. 소유자는 리의 주민 27호이다. 한반도 기후의 온난화의 영향으로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산지로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신동읍 가사리는 1980년경에 일본의 배추종자가 들어와 배추의 재배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화전적지인 표고 600~700 m에 적절했기 때문에 옥수수에서 전환되었다. 한국의 배추종자개량이 행해져 저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게 되어 차량 작업이 불편한 밭에서는 재배하지 않고 있다. 배추·무가 도입되기 전에는 자급자족으로 잡곡·콩·옥수수 등을 재배하였다.

임계면 낙천리는 3개의 행정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121농가가 거주하고 있다. 낙천리는 논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 밭 작물로 전환이 70%에 이르고 있다. 가목리는 백봉령을 경계로 정선군,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접경마을로 농지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여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다. 토양은 주로 마사토로 고랭지 배추 재배에 적합하다. 임계리는 4개의 행정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147농가가 거주하고 있다. 쌀 재배에서 밭 작물로의 전환이 60% 정도이다. 특히 임계4리는 감자채종포인테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임계면의 고랭지 채소 재배시작 시기는 1970년 초기이고 신동읍은 10년후인 1980년대 이후 재배를 시작하였다.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의 경영구조

가족 구성과 농업경영 형태

Table 3은 조사농가의 경영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농가의 평균 연령은 50.5세이다. 경영형태는 가족경영(1세대)이 7농가이다. A와 I농가는 2세대 가족경영으로 부모와 함께 경작하고 있다. 조사농가 중 B농가만이 유일하게 후계 농업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 인력의 진입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Table 4는 조사농가의 재배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조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14.1 ha이고 평균 소유면적은 8.8 ha로 대규모 영농을 하고 있다. 10-20 ha 이상의 대규모 가족경영농가도 5농가이다. 조사 농가 중 F농가는 57.3 ha로 가장 많은데 소유지가 전체의 2/3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농가는 모두 3.0 ha이상의 대규모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농가유형별 임대차형태와 임차규모를 살펴보면 경영규모 확대 방법으로 매입(B, H, I 농가) 이나 상속(H 농가) 등으로 소유지를 늘리는 방법과 임차를

Table 2. Jeongseon-gun Farming

(단위: ha, 호, M/T, kg/10a)

구분	경지 면적		농가 수	무			배추		
	합계	밭		재배 면적	생산량	단수	재배 면적	생산량	단수
2004	7,932.4	7321.4	3,153	704.7	30,569.6	7,264	2,602.5	39,901.9	1,534
2005	7,361.0	6900.0	3,406	826.9	29,202.4	3,532	1,478.8	69,990.9	4,733
2006	7,460.0	6823.0	3,387	644.5	25,586.6	3,970	1,769.3	78,549.5	4,440
2007	7,399.0	6815.0	3,323	771.4	26,698.0	3,461	1,748.4	80,408.0	4,599
2008	7,394.0	6940.0	3,190	683.0	11,932.0	3,594	1,707.0	73,264.0	4,292
2009	7,351.0	6917.0	3,853	707.9	25,660.6	3,625	1,591.5	74,003.0	4,650

data: Gangwon-do administration statistics

Table 3. Forms of Management

조사 농가	재배지역	연령	경영 형태	비고
A 농가	세비재	41	가족경영(2세대)	
B 농가	세비재	55	가족경영(2세대)	차남 취농
C 농가	가사	57	가족경영(1세대)	
D 농가	가사	55	가족경영(1세대)	정선군 신농민회 회장
E 농가	천포	54	가족경영(1세대)	
F 농가	천포	53	가족경영(1세대)	농업위원
G 농가	낙천	52	가족경영(1세대)	
H 농가	가목	44	가족경영(1세대)	U턴 귀농(1992년)
I 농가	임계	50	가족경영(2세대)	부모, 본인, 부인
J 농가	가목	44	가족경영(1세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Table 3. Forms of Management

조사 농가	재배지역	연령	경영 형태	비고
A 농가	세비재	41	가족경영(2세대)	
B 농가	세비재	55	가족경영(2세대)	차남 취농
C 농가	가사	57	가족경영(1세대)	
D 농가	가사	55	가족경영(1세대)	정선군 신농민회 회장
E 농가	천포	54	가족경영(1세대)	
F 농가	천포	53	가족경영(1세대)	농업위원
G 농가	낙천	52	가족경영(1세대)	
H 농가	가목	44	가족경영(1세대)	U턴 귀농(1992년)
I 농가	임계	50	가족경영(2세대)	부모, 본인, 부인
J 농가	가목	44	가족경영(1세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Table 4. Planted Areas

조사 농가	경영면적(ha)			입차료 (천원/ha)	규모 확대의 특징
	합계	소유지	임차지		
A 농가	13.2	4.9	8.3	1,210	- 소유지는 세비재단지, 차지는 국유지
B 농가	10.9	8.9	2.0	1,210	- 7~10년전에 국유지 7.9ha 구입
C 농가	4.9	2.6	2.3	181.5	- 2007년에 서울거주자(부채지주와 이농자)로부터 임차하여 확대
D 농가	12.1	3.6	8.5	756.2	- 3단지로 나뉘어 있는데 2단지는 리 내에, 1단지는 리 밖에 있음.
E 농가	3.3	3.3	-	-	- 농지는 당초에는 1.3ha였으나, 10년전 (1999년)에 3.3ha로 확대
F 농가	57.3	38.2	19.1	1,512.5	- 농지는 6개소에 분산되어 있음. 리 내에는 16.5ha. 나머지는 리 밖에 있음. - 임대인은 고령인으로 다른 산업으로의 전직함.
G 농가	5.9	4.9	1.0	3,025	- 10년전(1999년)부터 밭을 노인 2명으로부터 빌리고 있음 - 1992년부터 재배를 시작함.
H 농가	8.2	2.6	5.6	3,025	- 처음에는 상속받은 소유지 1.6ha과 임차지 3.3ha 재배. - 1997년에 1.0ha를 9천만원에 구입함.
I 농가	16.6	14.8	1.8	1,512.5 ~ 3,025	- 8단지로 구성됨. -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2009년 봄에 0.8ha을 구입하여 현재의 규모가 됨 .
J 농가	8.9	3.9	5.0	-	- 재배지의 50%가 경사도 15도 이상의 경사지 (지역에서는 40%가 15도 이상의 경사지)

자료: 설문조사

통한 방법이 있는데 E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9농가 모두 임차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부채지주(C 농가)와 고령인(F, G 농가)이다. 입차료는 지역마다 상이한데 G, H 농가가 3,025천원(/ha)으로 가장 높았고 D 농가가 756.2천원(/ha)로 가장 저렴하다.

고랭지 채소 생산과정

Table 5는 조사농가의 주요 재배 작목을 나타낸 것이다.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B농가가 1970년으로 가장 빠르다. 특히 B농가는 배추, 무, 양상추를 해마다 윤작하여 토질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모든 경작지를 3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에는 배추, 2구역에는 양배추, 3구역에는 무를 재배한 후 다음 년도에는 1구역에는 무, 2구역에는 배추, 3구역 양배추를 재배한다. D, F 농가는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으로 사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근의 농가들은 무와 배추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어 '고랭지 사과'의 전반적인 도입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농가는 도매시장의 특정 법인으로부터 브로콜리 재배를 권유받아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모든 농가들이 무를 재배하고 있어 무를 대상으로 작업체계를 조사한 것이 Table 6이다. 발갈기가 첫 번째 단계이다. 4월부터 늦게는 6월 초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 땅을 깊게 뒤집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때 포크레인 작업농가가 5농가 이다. 다음 단계는 파종인데 고랭지 지역의 특성상 5월부터 7월(조사시기에 D농가는 8월1일에 파종하였으나 보통 7월말에 완료됨) 무 재배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후계 인력을 보유한 B농가를 제외한 9 농가가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30명을 고용하고 있다. 방제는 보통 5회에서 7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대규모 농가는 고용노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F농가는 대규모 무 재배면적(13.2 ha) 방제를 위해 인력을 상시고용하고 있다. B농가만이 가족 노

동력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H농가는 판매한 상인이 3회 정도 실시하였다. 파종 후 60일-70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수확이 가능하다. 조사지역에서는 7월말부터 시작된 수확이 약 2달간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한 달 정도에 집중된다.

Table 5. Kinds of Cultivated Highland Vegetables

조사 농가	도입 시기	주요 작목 재배 면적(ha)								비고
		무	배추	양배추	양상추	감자	황금콩	옥수수	기타	
A 농가	2004년	3.3				9.9		13.2		황금콩은 메주용과 두부용임.
B 농가	1970년대 말	3.0	5.6	0.7				1.6	10.9 - 배추, 무, 양상추를 해마다 윤작 함.	
C 농가	1980년대 초	1.3	2.3					1.3	4.9 - 기타는 옥수수, 황금콩, 고추 1.3ha임.	
D 농가	1989년	2.3	6.6	1.0				2.2	12.1 - 기타는 호박 0.3ha, 사과 1.9ha임.	
E 농가	1979년	2.3				1.0		3.3		
F 농가		13.2	13.2	19.8				11.1	57.3 - 기타는 브로콜리 10.0ha, 사과 1.1ha임.	
G 농가		1.6	1.6					2.7	5.9 - 기타는 감자 1.6ha, 벼 1.1ha임.	
H 농가	1992년	1.6	3.3			3.3		8.2		
I 농가		5.0	3.3			45.0		3.3	16.6 - 기타는 줄당근과 두릅 싹 3.3ha 임.	
J 농가		0.8	6.6			0.4	0.4	0.7	8.9 - 기타는 야콘 0.7ha임.	

Table 6. Production Process of Radishes

조사 농가	면적 (ha)	밭 갈기				파종			
		시기	작업	단가	일수	시기	작업	인수	일수
A 농가	3.3		포크레인 위탁	35만원/ha	3.3일	6월20일	수작업	20명	2일
B 농가	3.0	5월	포크레인	자기소유		6월중순	기계파종	3인	
C 농가	1.3	4월중순	트랙터	자기소유		5월말-6월	멀티시트	25인	
D 농가	2.3	4월중순	포크레인	40만원/일		8월1일		16인	1일
E 농가	2.3	4-5월	포크레인 위탁	40만원/ha	2.3일	6월초순		15인	
F 농가	13.2	4월5일	포크레인 위탁	40만원/일		5월, 7월	기계파종	30인	5일
G 농가	1.6	5월초순				5월초순			
H 농가	1.6	6월상순	트랙터			6월하순	수작업(75%)	5인	
I 농가	5.0		트랙터			6월			
J 농가	0.8								

자료: 설문조사

Table 6.(continue) Production Process of Radishes

조사 농가	면적 (ha)	배토			정식		방제		수확		
		작업	단가	일수	일수	단가	일수	회수	작업	시기	파종후
A 농가	3.3	포크레인위탁	35만원/ha	3.3일	수작업	15인	2일	7회	4명	9월말	100일
B 농가	3.0								3명		60-70일
C 농가	1.3				수작업	5인	1일	5회	1명		
D 농가	2.3				보식	2인		5-7회	3명		
E 농가	2.3	포크레인위탁	50만원/ha			15인		7회	7명	8월	70일
F 농가	13.2							7회	상시고용		
G 농가	1.6									7월말	
H 농가	1.6							3회	9명(상인)		
I 농가	5.0									9월초순순	
J 농가	0.8										

자료: 설문조사

고랭지 채소 계약체계

조사 대상 농가들의 계약시기, 계약방법(수량 단위, 면적 단위), 지불방법, 계약대상이 모두 다르다. 전체적으로 외지 산지유통인에 의한 발매기 출하가 전체 출하량의 70%로 가장 많고 농협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J농가가 유일한테 전체 수확량의 5% 정도를 자가 수확하여 서울의 대형마트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직거래는 전무한 실정이다. 조사 농가의 고랭

지 채소 계약체계에 대해 정리한 것이 Table 7이다.

계약시기는 무 재배 시작전인 3월부터 출하 20-30일전 까지 다양하다. 조사농가 중 F농가는 대규모 경작지를 기반으로 분산 파종을 하고 있는데 5월 재배는 수확량이 많아 농협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고(수량 계약) 6월, 7월 재배는 수확량이 적어 전량 상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상인에게 판매할 때는 계약시기가 수확 20-30일 전으로 짧다.

Table 7. Highland vegetables Contracts

조사 농가	지역	작목	면적 (ha)	계약 시기	계약금	지불 방법	계약대상	
A 농가	세비재	무	3.3	6월	15백만원/ha	- 6월 30%, 50일 후 50%, 수확시20%	상인	
		- 2008년까지는 농협출하, 영농자금 나오지 않아서 처음으로 상인과 계약함.						
B 농가	세비재	무	3.0			- 5월 계약시 전액 지불	농협	
C 농가	가사	무	1.3		18백만원/ha		상인	
		배추	2.3		12백만원/ha		농협	
		- 멀티시트 1권의 피복면적이 0.1ha로 이것을 1필이라고 부름 .						
D 농가	가사	무	2.3	5월		- 계약시 30%,수확 후 70%	상인	
		배추	6.6			- 계약시 30%,수확 후 70%	상인	
- 무와 배추는 같은 상인임. 계약하는 상인은 매년 바뀜. 상인은 전국에서 옴.								
E 농가	천포	무	2.3	3월	160원/kg	- 계약시 30%	농협	
		무(5월파종)	5.0	4월	170원/kg	- 계약시 30%	농협	
		- 품종이 2품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F 농가	천포	무(6월파종)	8.2	출하 20-30일전		- 계약시 30% - 수확 10일~2주 후에 70%	상인	
		- 매년 계약금 지불 방법이 바뀜.						
		무(7월파종)	0.6	출하 20-30일전		- 계약시 30% - 수확 10일~2주 후에 70%	상인	
- 5월재배는 수확량이 많으므로 농협에 판매함. - 7월재배는 수확량이 적으므로 농협과는 계약하지 않고 전량 상인에게 판매함.								
G 농가	낙천	무	1.6	5월	13백만원/ha	- 계약시 10%, 수확시 90%	상인	
		배추와 같이 입도선매 계약						
		배추	1.6	5월	13백만원/ha	- 계약시 10%, 수확시 90%	상인	
- 매년 계약하는 상인이 다른데 그 이유는 입금형태와 단가가 다르기 때문임. - 농가와 상인의 작부면적 인식이 다를 경우 GPS 사용함.								
H 농가	가목	무	1.6	4월	15백만원/ha	- 계약시 50%, 파종후 25%, 1개월 후 25%	상인	
		- 6-8년 전부터 작부를 재개하여 ‘오즈카리’라는 내성이 강한 품종 재배함. - 무와 배추는 파종전에 계약하여 파종, 정식 후 밭을 상인에게 인도하여 방제 및 수확은 상인이 함. 품종은 지정되어 있음.						
		배추	3.3	5월	15백만원/ha	- 계약시 50%, 파종후 25%, 1개월 후 25%	상인	
- 배추의 경우 자가육묘하면 계약가격은 16백만원/ha임(올해는 상인이 묘를 공급함).								
I 농가	임계	무	5.0		장소에 따라 다름	- 계약시 30%,수확 후 70%	상인	
		배추	3.3		장소에 따라 다름	- 계약시 30%,수확 후 70%	상인	
J 농가	가목	무	0.8					
		배추	6.6		15백만원/ha			
- 95% 입도선매, 5% 자가수확(서울 대형마트 판매, 2000원/1포기.)								

자료: 설문조사

계약금과 지불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면적 계약과 수량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면적 계약은 포장, 재배지, 재배방법을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수확되는 모든 농산물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실수요자가 계약산지를 육성하는 초기에 취해지는 방식으로 생산과잉에 따른 리스크는 실수요자가 부담한다. 수량 계약은 포장, 재배지, 재배방법을 결정하고, 수확된 농산물 중 일정 수량만을 구입하는 방식인데 면적을 거쳐 행하는 경우가 많고, 생산과잉에 따른 리스크는 생산자측이 부담한다. 계약거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위, 2009) 수요자는 차별화된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 등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을 사전에 결정해 놓기 어려워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영업, 거래상의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생산자는 소비자의 니즈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 품질관리 방향이 명확해지고 안정된 판로가 확보되고 가격이 안정되기 때문에 경영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그러나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물량 이상으로 재배하여야 하므로 항상적인 과잉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특정 등급중심의 편중된 거래로 잔품판매가 곤란하며 거래 당사간에 지배와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상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할 위험성이 커진다(이 외, 2012).

B, E, F농가는 농협과 계약을 했는데 물량단위 계약이다. 하지만 천포리에 속한 E, F 농가의 계약 금액은 E농가는 kg당 160원인데 F농가는 170원으로 농가마다 다르다. 세비재 지역인 B농가는 농협과 계약하고 있는데 5월 달에 계약금이 전액 지불되었다. 상인과의 계약은 면적 단위이다. 계약금액은 13백만원에서 15백만원(/ha)이고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다. A농가는 계약할 때 계약금액의 30%, 계약 후 50일 후에 50%, 수확 할 때 20%를 받는다. D, E, F, I농가는 계약시 30%, 수확 후에 70%를 받는다. G농가는 계약시 10%, 수확 후 90%를 받는다. H농가는 계약시 50%, 파종 후 25%, 1개월 후 25%를 받고 있다. 고랭지 채소 계약 대상이 상인인 경우 매년 계약하는 상인이 다르다. 따라서 아직까지 개별농가와 상인과의 지속적인 계약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랭지 무 재배면적이 339 ha로 가장 많은 정선군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의 경영구조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가족 구성과 경영 승계에 대해 살펴보았

다. 분석결과 농가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은 2인가구(가족경영 1세대)이고 평균 가구원수는 2.4명이다. 3인가구는 후계 영농인력을 보유한 1농가를 제외하고는 부모(또는 모친)과 함께 가족경영을 하고 있다. 영농승계자를 보유한 농가는 1농가로 경영존속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14.1 ha인데 임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농일수록 임차지가 많은데 이것은 지속적인 농지 가격 상승에 따라 농지구입보다는 임차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고랭지 채소(무)의 작업체계를 살펴보았는데 위탁영농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농가의 평균 연령이 50.5세로 비교적 강한 영농의욕과 노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후계 인력을 보유한 B농가를 제외하고는 9농가가 농업노동을 고용하고 있다. 고랭지 채소는 파종과 방제, 수확 등 주요 작업에서 직접적인 수작업이 필요하므로 농업기계 도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력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다. 그리고 연구지역에 포크레인 위탁 비율이 높는데 단가가 40만원(ha 또는 1일)에 이르고 있어 생산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고랭지 채소는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가 70%로 농협 계약(25%)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현장조사 결과 농가들은 농협보다는 산지 수집상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조사결과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농가는 없고 대형마트에 직접 출하하는 농가도 1농가에 불과했다.

고랭지 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은 국민 식품 공급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는 한미 FTA 대책으로 발농업 직불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고랭지 채소(무, 배추)는 제외되었다. 개별 농가의 고랭지 채소 재배 의지가 강력해도 이러한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랭지 채소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고랭지 채소에 한정하여 횡단면적인 경영구조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경영구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정호 외 (2007)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 변화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태석 (2009) 농산물 계약거래 확대 이대로 좋은가?,

GS&J 인스튜트.

유덕기 외 (1996) 농업구조 변화의 요인과 농가 경영의
개선 방향. 사회과학연구 제 3호.

이향미 외 (2012) 강원도 산지농협의 고랭지 배추 계
약재배 실태와 확대방안, 한국식품유통학회 동계학

술대회 발표논문집.

임형백 (2008) 한국 농업인력육성의 방향 전환. 농촌사회
제18집 1호.

정선군 행정통계 각 년도.